‘강동원표’ 검객 온다

넷플릭스 영화 ‘전, 란’ 노비 신분으로 의병 활약 박찬욱 감독 공동 집필 박정민·차승원 등 캐스팅

배우 강동원이 조선시대 노비 검객이 돼 액션 연기를 펼친다.

넷플릭스는 지난 7일 영화 ‘전, 란’(戰, 亂)의 제작을 확정했다며 캐스팅을 공개했다.

이 영화의 제작에는 박찬욱 감독이 참여한다. 박 감독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도 신철 작가와 공동 집필했다.

넷플릭스는 “박찬욱 감독과 넷플릭스가 함께하는 첫 한국 영화”라고 설명했다.

‘전, 란’은 임진왜란 때 조선 최고의 무신 집안 아들인 ‘종려’와 그의 몸종 ‘천영’의 이야기다. 종려는 임금의 최측근 무신이 되고, 천영은 의병이 된다.

노비의 신분이지만 뛰어난 검술로 의병이 되는 천영 역에는 강동원이 캐스팅됐다. 강동원은 이 영화에서 역동적인 액션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과에 급제해 선조의 호위 무사가 되는 종려는 박정민이 연기한다. ‘전, 란’에서 종려와 천영은 신분을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지만, 각각 무관과 의병이 되면서 적으로 마주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백성을 버리고 피란을 가고 전쟁이 끝나서는 자기 권력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선조 역은 차승원이 맡는다.

굳센 의지의 의병 ‘범동’ 역에는 김신록, 민중을 이끄는 양반 출신 의병장 ‘김자령’ 역에는 진선규, 잔혹한 왜군 장수 ‘겐신’ 역에는 정성일이 캐스팅됐다.

‘전, 란’은 김상만 감독이 연출했다. 라디오를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 ‘심야의 FM’(2010), ‘걸스카우트’(2008) 등이 그의 전작이다.

배우 강동원

넷플릭스는 이 영화에 대해 “격동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라마에 전투와 추격 액션을 더해 장르적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복싱 유망주, 전역 전부터 준비했죠”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우도환

사채업자에 맞선 두 청년 이야기 “전역 직후 촬영 시작…운동이 일상 티격태격 브로맨스도 관전포인트”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배우 우도환.

“몸을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전역 6개월 전부터 준비했는데, 복싱 영상 찾아가면서 연병장에서 혼자 권투 연습하고 그랬죠.”

최근 ‘조선변호사’에서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선보였던 우도환이 이번에는 거대 악에 주먹으로 맞서는 복싱 유망주로 돌아왔다.

9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사냥개들’을 통해서다. ‘사냥개들’은 사람 목숨보다 돈이 먼저인 사채업의 세계에 휘말린 두 청년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

우도환이 맡은 역은 복싱 신인왕전에서 우승할 정도로 재능있는 유망주 건우.

그는 오직 링 위에서만 주먹을 쓰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불법 사채업자 명길(박성웅)과 얽히게 된다.

우도환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냥개들’ 제작발표회에서 “건우는 어눌하지만 순수하고 착한 복서의 심장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건우의 몸과 주먹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올해 1월 5일 전역한 뒤 이튿날부터 촬영에 들어갔다는 그는 전역 6개월전 대본을 받은 뒤부터는 “운동이 일상이었다”고 떠올렸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건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부터 시작하고, 잠들 때까지 복싱 생각만 하는 친구예요. 저도 성실한 훈련으로 다져진 몸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냥개들’은 성격이 완전 딴판인 두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티격태격하는 브로맨스로 보는 재미를 높인다.

복싱대회 결승전에서 건우를 만나 피를 나눈 형제처럼 친해진 우진 역은 배우 이상이가 연기한다. 건우를 악덕 사채업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이상이는 “대본을 읽었을 때 감독님의 전작인 영화 ‘청년경찰’과 비슷한 느낌이 났다”며 “이렇게 액션 주문이 자세한 대본은 처음이었고, 두 캐릭터의 브로맨스도 욕심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99%의 경우에는 컴퓨터그래픽(CG)이나 대역 없이 저희가 직접 액션을 소화했기 때문에 훨씬 사실적인 K-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사냥개들’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새론이 통편집 없이 출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김주환 감독은 “작품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김새론의 분량을 최소화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작품이고, 그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 위해 편집에 신경 썼다”며 “‘청년경찰’ 때보다 약 6배 많은 액션과 다양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브로맨스로 8시간을 가득 채웠다”고 귀띔했다.

9일 넷플릭스 공개.

/연합뉴스

크라잉넛, 3년 만에 신곡 ‘야근’ 발표

일에 묻혀사는 현대인들 위로

밴드 크라잉넛이 3년 만의 신곡 ‘야근’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드럭레코드가 8일 밝혔다.

‘야근’은 크라잉넛이 지난 2020년 데뷔 25주년 기념 베스트앨범을 내놓은 이후 OST나 컬래버레이션(협업) 음원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내놓는 신곡이다. ‘야근’은 번아웃이 올 때까지 과도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네 일상을 어루만지는 곡이다. 크라잉넛은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청자에게 ‘괜찮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드럭레코드는 “오늘의 할 일을 미루고 신나게 춤을 추자는 내용의 가사와 단순하면서 신나는 멜로디는 어른을 위한 동요 같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크라잉넛 멤버들은 ‘야근’ 뮤직비디오에서 회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퀵서비스맨 등으로 분해 연기를 펼쳤다.

크라잉넛은 이달 23~24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 달 부산과 춘천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연다. 뉴욕 링컨센터에서도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ENA 추리극 다음달 첫 선

‘오랫동안…’ 나인우·김지은 주연

배우 나인우와 김지은 등이 주연하는 추리극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이하 ‘기다렸습니다’)가 내달 처음 방송된다.

ENA는 “새 수목드라마 ‘기다렸습니다’를 7월 26일 밤 9시 방송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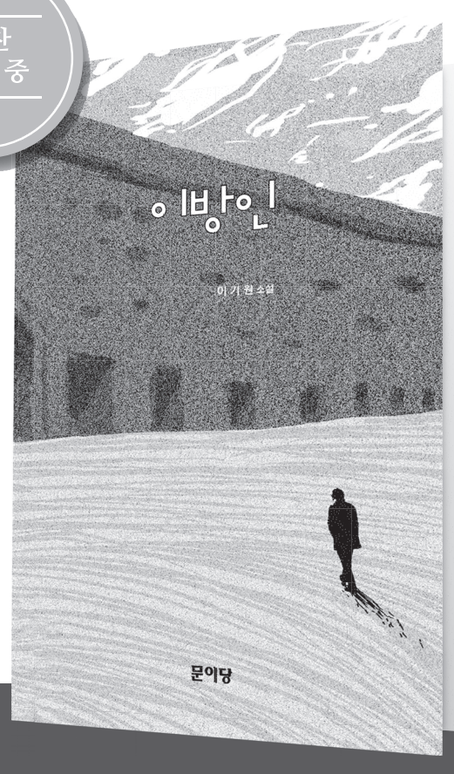
‘기다렸습니다’는 살인사건의 진범을 좇는 형사와 검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나인우는 유쾌한 성격의 형사 오진성 역을 맡았다. 연쇄살인 사건의 특별 수사팀으로 전출되면서 검사들과 함께 수사에 나서게 된다.

김지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인을 옭아매는 불도저 검사 고영주를, 권율은 고영주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동료 엘리트 검사 차영운을 연기한다.

/연합뉴스

절찬 판매중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 점 판 매 | 영풍문고 충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